



12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 19대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제6차 임시의원총회 도중 정회기 선언된 상황에서 박홍석(왼쪽) 후보와 이승기 후보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상의 회장선거 또 연기

## 후보간 합의 추대 둘러싸고 진통 의원총회선 “1주일내 조율” 주문

제 19대 광주상공회의소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또 다시 연기됐다. 광주상의는 12일 오전 제 6차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했다. 그러나 후보로 나선 박홍석(63·력키산업대표) 광주상의 회장 직무대행과 이승기(57·삼능건설대표) 상임의원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장 선출 일정 자체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총회는 두 후보가 합의의를 통해 추대 여부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1주일의 말미를 준 뒤 합의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상임의원회의의 조정을 통해 합의추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경선까지 갈 것으로 전망됐던 이날 의총은 김성산 부회장의 모두 발언에 힘입어 합의추대로 후임회장을 선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출발부터 화합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부회장은 “의총 직전에 열린 상임의원회의가 ‘광주상의의 전통에 따라 후임회장을 합의추대하자’고 결의했다”고 전하면서 참석의원들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두 후보의 정견발표로 이어지면서 돌변했다. 박 후보는 “누구의 힘이 작용했는지 당초 추대로 기뻐던 보궐선거 분위기가 경선까지 오게 됐다”면서 “광주상의와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후

보사퇴로도 해석될 수 있는 ‘폭탄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주위에서 출마를 권유하기에 합의추대하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며 “후보등록을 했다고 해서 꼭 경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날 총회는 박 후보가 자리를 뜨면서 과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광주상의는 마형렬 전 회장이 사퇴한 지난 9월15일 이후 2개월 넘게 회장 공백사태를 초래해 산적한 경제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지역경제계에서는 두 후보가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하루빨리 광주상의의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두 후보간 조율이 물건너갈 경우 제 3자를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직무 관련자와 각자 돈내고 골프쳐도 안돼” 건교부, 직원 ‘행동강령 길라잡이’ 발간

“과거 직무 관련자와 각자 비용을 내고 골프를 해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건설교통부는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강령 길라잡이’를 발간해 전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자는 문제풀이와 위반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공무원이 과거 직무 관련자와 각자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골프를 해도 행동강령 위반이다. 공무원행동강령중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은 모든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물품의 하자 발견했는데 이를 묵인하도록 과장이 지시하더라도 “과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이나 e메일 등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소명 후에도 계속 부당지시를 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금호石化, 전자재 시장 진출

### 2012년까지 매출 4조 기 육 시장 포부 밝혀

금호석유화학이 전자재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한편 정밀화학사업을 강화해 오는 2012년 매출을 4조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 육 금호석화 사장은 1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매출액은 2조1천억원, 영업이익은 1천700억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2012년에는 매출액을 적어도 4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 사장은 또 “5년후 매출액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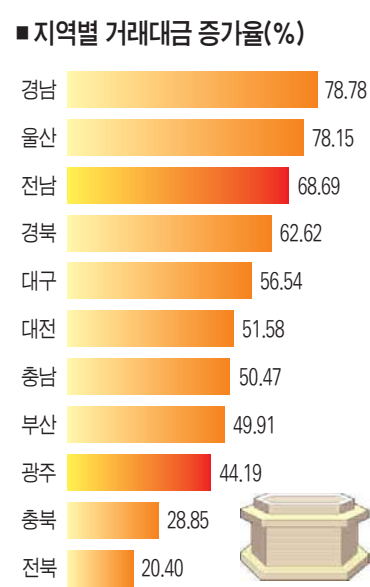
문별로 합성고무 1조6천억원, 합성수지 1조1천억원, 정밀화학 4천억원, 전자화학(전자재료) 3천억원, 열병합 2천억원, 전자재 등 신규사업 4천억원 등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호석화는 친환경 ABS 합성수지를 이용한 창조 브랜드 ‘휴그린’을 개발해 내년부터 판매를 개시, 2012년까지 LG화학·한화종합화학·KCC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

## 주식 투자열풍... 호남은 ‘미지근’

### 거래대금 35조...영남권 102조와 대조 증가율 38.7% 그쳐... 경제규모 열악

올 들어 국내증시의 급등으로 전국적으로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호남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 열기가 썰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권과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국 11개 지역별 거래대금 증감률을 조사한 결과 광주의 거래대금이 14조9천1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4.19%가 증가해 증가율 9위를 기록했다. 전북의 거래대금도 12조6천664억원으로 거래대금 증가율이 20.40%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거래대금이 7조6천493억원으로 1년사이 68.69%가 늘어 3위를 차지했다. 경남이 거래대금 22조1천663억원(78.78%)으로 증가율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울산(13조4천693억원) 78.15% ▲경북(14조1천739억원) 62.

62% ▲대구(22조9460억원) 56.54% 등 순으로 영남지방의 거래대금 증가폭이 가장 컸다. 권역별로도 부산·울산·경남의 거래대금을 합칠 경우 64조9천158억원이었으며 증가율도 64.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37조1천199억원) 58.81% ▲대전과 충남·북(28조6천566억원) 44.32% ▲광주와 전남·북(35조2천296억원) 38.71% 등 순이었다. 서울과 수도권권을 포함한 전체 거래대금 증가율은 51.71%였으며 거래대금 규모는 1천107조1천642억원이었다. 주식 순매수 규모로도 전남(672억원)과 광주(924억원)가 각각 11위와 9위를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이 3천269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남(2천685억원), 울산(2천289억원), 대구(2천284억원), 충남(1



전696억원) 순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이른바 ‘큰 손’들 대부분이 몰려있어 지방의 투자규모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특히 호남지역의 투자가 적어 열악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어업용 면세유가 내린다 해수부 1당 5~6원 검토

고유가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민들이 조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유황 경유 등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올해 1월 1당 442.8원에서 이 달 565.8원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매달 공개입찰로 결정되는 어업용 면세유 값도 오르는 것이다. 지난 7월 1당 509.7원을 기록, 500원대로 올라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년새 무려 1당 200원 넘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출어경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조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근해 어업자만머져 줄어 더 번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면세유 가격마저 급등하니 조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다”면서 “전국 어느 함을 가봐도 요새 한숨소리만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재정경제부에 어업용 면세유의 원유에 붙는 1%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어업용 면세유 원유에 붙는 관세를 없앨 경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1당 5~6원 가량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양부는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름을 덜 들이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용역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소외계층 월동준비 돕기 귀뚜라미 ‘사랑의 봉사’

귀뚜라미그룹(총괄대표 김규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이현만)와 함께 소외계층의 월동준비를 돕기 위한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가스안전공사 봉사단과 귀뚜라미 주부봉사대 등 봉사단 100여명이 올 연말까지 아동, 노인, 장애인 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겨울나기 체비를 갖춰



주게 된다. 봉사 항목은 난방시설 교체, 배, 도배, 장판 갈기, 생필품 전달, 장애우 목욕, 공부방 도우미 등이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난방 및 가스시설 교체는 가스안전요원과 보일러 기술자들이 각 시설을 방문해 설비작업을 진행한다. /최경호기자 choice@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해결합니다.  
www.dogday.co.kr  
1588-8499 | 080-222-0100